



# 빛의사람들

2018.9.

277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마재 성지’ 성가정 동산 정약중 성가정 모자이크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요한 12,25)





###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수용자 자녀 첫 돌잔치

8월 1일(수) 서울남부구치소 여사에서 수용자 자녀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봉사자들과 교도관들이 함께 자리하여 수용자 자녀의 첫 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자녀와 건강하게 생활하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수용자 자녀의 첫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8월 6일(월)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강봉묵 마티아(살레시오회)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강봉묵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심으로서 죽음의 시련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며,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통해 변화된다면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에 감동과 울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대표봉사자들의 축가로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의 축일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며,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기쁘고 축하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8월 7일(화)~10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 17)라는 주제로 여름신앙학교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의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해밀 가족 나들이

8월 10일(금)~11일(토) 대부도로 해밀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푸른 하늘과 짙은 초록 잎들로 인해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왜 사회교정사목위원회야?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순교자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와 종교가 같기 때문도 아니고, 목숨을 바쳤다는 이유 하나만도 아닐 것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금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며 이상한 눈총을 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느님 계심을 믿고, 하느님 시선을 더 두려워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던 것이라 전혀 다른 종족이라 생각할 법도 한데, 서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써가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행하였기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순교자의 피가 우리 교회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그렇게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반상의 차별이 없는 나라, ‘형제’, ‘자매’의 호칭이 어색하지 않는 사회,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을 생각합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지”, “감옥에 처넣어야지”라며 손가락질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곳곳이 우리 수용자들에게 ‘형제’요 ‘자매’라 부르며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후원을 해주십니다. “저 사람 출소자래”라며 색안경을 끼고 수군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랑곳없이 손 내밀고 ‘잘해봐’라며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하느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힌 이도, 그리고 출소한 이도 같이 잘 살아보라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봉사자분들, 후원자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의 실천이 수용자, 출소자들을 배제하고 백안시하는 사회에서 동행하는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라는 이름을 생각합니다. 교정(矯正).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바로잡으려면 수용자, 수형자, 출소자를 바로잡아야지 왜 사회를 교정할까, 왜 죄인교정사목위원회가 아닌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일까. 간혀 있는 이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겠다는 ‘각박하고 차가운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우리는 늘 수용자를 위한 기도를 바치며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용자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 후원, 그리고 출소한 이들에 대한 열린 마음이 우리 사회를 함께 살기에 좋은 사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로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입니다. 저 사람만을 바꾸는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꾸는 위원회입니다. 순교자들의 정신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를 바꾸는 위원회입니다. ■



## 아브라함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세상애나!

“여보,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소.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또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오.”(창세 12, 11-13)

성경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첫 말마디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먹을 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것도 꽤썸한데, 이집트에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버립니다. 단순히 호칭만 오누이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부를 얻습니다(창세 12, 16). 파렴치합니다.

한번 죄짓고 깨달아 올바르게 살았다면,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훈훈하게 마무리 짓겠건만, 맙소사. 이번엔 그라르 지방에 가서, 또다시 아내를 누이로 둔갑시키고, 임금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갑니다(창세 20, 1-17).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라는 것이 들키자, 정말 이복동생이라고 변명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복동생과 결혼한 것일지는 몰라도,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며, 변명하는 모습은 비겁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다.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군요.

어느 성서학자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이집트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했던 그 죽인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인이 아벨을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일 때의 그 단어와 같았다는 것에 드러납니다. 그 두려움에 자신의 인간적 방법, 잔꾀, 간교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적힌 성경 본문을 읽으면, 하느님과 대화의 무척 많이 나옵니다. 혹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거나 제단을 쌓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다다를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될 때도 그랬습니다. 롯을 잡아



간 이방 임금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와서는 하느님의 사제 멜키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며 제사를 바쳤고, 또 축복을 받습니다. 자주 하느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많은 후손과 땅을 약속받고, 심지어 죄악의 도시 소돔을 위해서 하느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자신의 몸종에게 질투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이 언짢을 때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를 누이로 칭한 두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내려 배고프고, 가축들은 다 죽어가고, 그래서 외국으로 피난 가야 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느님보다는 인간적 방법에 더 귀 기울인 것입니다. 어찌나 아브라함이 하느님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하느님은 이방인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일깨워주십니다(창세 12, 7; 20, 3-7).

그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습니다. 다가올 두려움의 순간, 혹은 절망의 순간,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느라 하느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울 때 더 많은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느님 제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청하기 바빠서 하느님 마음을 듣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느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파렴치한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인데도 벌을 내리시기는커녕, 여러 번에 걸쳐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위기를 넘겨보려고 간교한 꾀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 죄에 빠지기도 하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또 넘어지는 나약한 아브라함이지만, 인간적으로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런 아브라함 곁에서 계속 말을 건네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노라, 너에게 복을 내리겠노라, 그렇게 토닥토닥 거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어떤 잘못을 했건, 신앙이 부족하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싸여, 혹은 절망에 사로잡혀 아니면 내가 처한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인간적인 해결방법에만 몰두한 채, 하느님의 축복과 위로를 못 듣고 있는 것뿐일 것입니다. 어찌면 하느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잘못에 대한 벌이 힘들어하는 시간 동안 하느님 위로와 축복을 못 듣는 것, 그 자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하느님을 느끼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겠지요.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대화하고,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께 귀 기울여 그의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사악을 변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실천을 보여주는 정수였던 것이죠. ‘야훼 이레’ 주님께서 마련하신다. 주님께서 마련하시지만, 그 마련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응하고, 그곳으로 걸어간 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마련해놓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싸여 그 축복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 하느님의 아픈 손가락

박봉에 까리타스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봉사자

† 찬미 예수님

세례받고 주일만 지키는 신자였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당 행사에 참여하다 만난 자매님의 권유로 레지오 활동을 통해, 교정사목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형제들을 만나기 전, 일반인들이 접하지 않는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TV나 신문 라디오뉴스에서만 보고 듣던 공간, 주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곳, 현재도 그렇지만... '왜 하필 교정시설에서 봉사 하느냐' 묻는 분들도 더러 계셨다.

일단, 두려움과 호기심을 안은 채, 레지오단장님을 따라 영등포교도소(現 서울남부교도소) 집회 중 미사참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형제님들과 교도관님들로 꽉 메워졌고, 강단 위에서 본 형제님들은 머리에 뿔이 나고, 눈이 빨갛고 몹시 험악한 얼굴을 가진 도깨비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남동생,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래, 우리와 똑같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픈 손가락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선입견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만남의 기쁨과 설렘으로 전환된 것 같았다.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여기 계시는 분들이구나.'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이끄셨다고 생각하니,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반갑게 웃으며 다가오는 한 청년!

반갑다며 자기소개를 하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회 때 본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회에서 봉사자를 만나니 반가웠지만, 자신과 다르게 봉사자를 아는체하면 꺼리지 않을까 고민하다 용기 내 다가온 것이었다고 했다.

지하철 내에서 길게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천주교 집회에 나가면 마음이 평온하고 즐겁고 기뻐했다고 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출소 후에는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으며, 주일미사도 참례한다는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 청년과 짧은 만남으로 인해, '나의 작은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끼게 하는 만남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도 형제님들과 만나게 되는 화요일이면, 오늘은 또 어떤 형제님들이 오실까? 라는 설렘을 가지고 참석하게 된다.

형제님들을 위해 신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활동 이후, 현재까지도 나의 마지막 기도는 항상, 갇힌 자들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

처음 봉사할 당시에는 교정사목후원회 없이 개인 봉사자들의 봉사와 후원으로만 진행되어지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영적,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더더욱 고맙게 느껴진다. 지금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관리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감사하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 참~ 고맙습니다.”





## 숫아날 구멍이 된 기쁨과희망은행

19기 창업교육생 소감문

박○○ / 19기 창업교육생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기쁨과희망은행 창업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분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현대일 신부님으로부터 기쁨과희망은행의 설립 취지, 현재 운영현황 등 설명을 듣게 되었고, “후원회원 할머니들의 적은 돈이 모여 기금이 만들어졌고,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돈의 무게를 훨씬 무겁게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단코 기쁨과희망은행의 지원금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돈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를 다짐을 해 봅니다.

모든 강사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으며, 직원들의 열의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많은 것을 상실했고,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지원금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않으며, 본인의 모든 인맥과 인프라를 동원해서 성실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 모든 관계자와 강의에 힘써주신 강사님 모든 분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선한 뜻 변함없이 기쁨과희망은행이 계속 운영되고 발전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남○○ / 19기 창업교육생

처음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쁨과희망은행이란 단체에 발을 들여 일주일 동안 창업교육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과 정보 및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창업에 자신감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과 단체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제가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막막하고 불안한 심리상태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많은 고민과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막연하게 앞만 보며 버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숫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게 한 가닥 희망이 다가와 다시 제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쁨과희망은행을 알게 되어 무작정 찾아왔는데, 처음 온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창업에 따른 교육 일정을 알려주며 지속해서 연락이 되어 19기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및 강의로 인해 창업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창업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만큼 꼭 성공해서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멘토가 되겠다는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겨 앞으로 생활해 나아가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창업교육에 준비해 주신 많은 분과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상처가 꽃이 되어 피어나는 그 순간

신은하 덤프나 / 독서심리상담사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남부구치소 집중인성교육 첫날 폭풍(?) 같은 질문들로 주춤 하던 형제·자매들의 표정들이 생각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생각해야 하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여야 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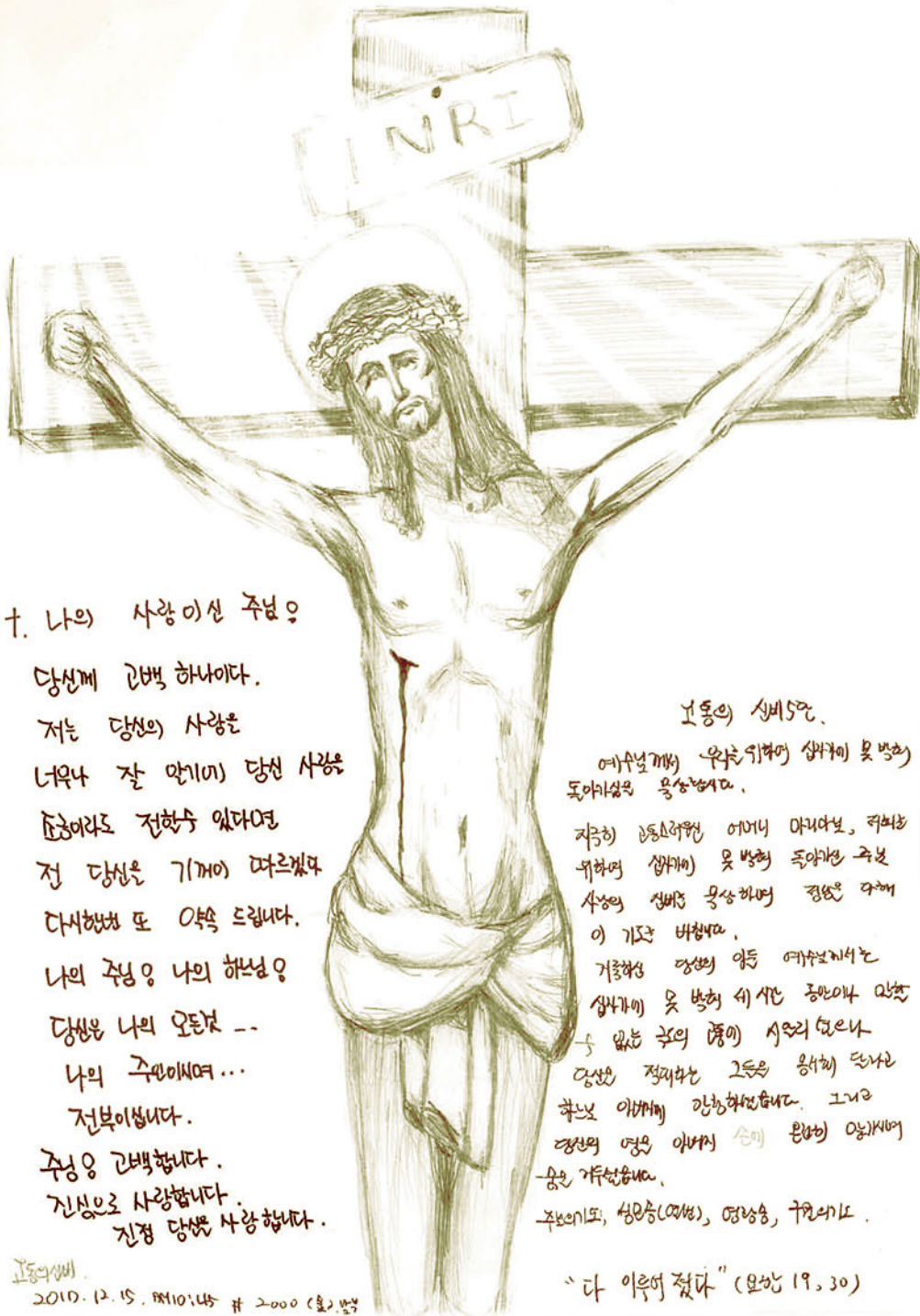
‘책과 함께하는 마음산책’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 서로 낯설어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교육장 안에 고스란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추억의 노래 & 음악을 듣기도 하고, 시 한 편을 함께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독서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마음속 웅어리진 실타래 뭉치를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합니다.

굳이 들여다볼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무시하며 돌보지 않았던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과 마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조금만 용기를 내어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독서매체를 통해 경험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며 연결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견디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라고 하면 움츠러들던 이들이 ‘나 찾기 놀이’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나를 넘어서게 했던 상처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일으키고, 넘어진 이웃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고통의 극치와 행복의 극치가 만나는 절정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빛나도록 반짝이고, 자신의 내면을 글쓰기로 표현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즈음 얼굴빛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꽃이 되어 피어나는 그 몽클한 순간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에제 36, 26)는 성경 구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도록 채워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자신과 마주하는 일, 그 자신에게 침묵을 깨고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순간마다 가슴 찡하도록 감사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시선까지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나의 존재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나를 사랑하며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무엇을 즐기며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해하는지? 내가 두려워하는 감정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 마음의 눈과 귀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책과 함께하는 마음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독서치유의 효과는 자신이 가진 문제의 치유와 함께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이 생각해 보지 못한 낯선 삶을 엿볼 수 있으며, 작품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자신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시를 읽으며 지독히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고, 열러주고, 안아주어 상처라는 못이 뽑힌 자리는 그토록 따스해지고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 나의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 고백 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잘 만기에 당신 사랑을

표현이라도 전한듯 있다면

전 당신은 기꺼이 따르겠다

다시행복도 약속 드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해님:

당신을 나의 모든것 --

나의 주님이시며...

전부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통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죽어주시고 목숨을 바치셨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어머니 마리아보, 귀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신 죽은  
사랑의 십자가 목숨 바쳐 고통을 당해  
이 기도 바랍니다.

거룩하신 영의 영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 세 시간 동안이나 많은  
고통을 겪으신 후에 사셨으나  
당신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신  
후로 이제까지 관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영을 아버지께 돌려 받으시며  
영원히 가시옵소서.

주님에도, 성령(聖靈), 영생(永生), 구원(救贖).

"다 이루어졌다" (요한 19:30)

고통의 십자가.

2010. 12. 15. 제110차 # 2000 (호) 발행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님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림과 기도문으로 봉헌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겨울 아가

눈보라 속에서 기침하는  
빙어리 겨울나무처럼  
그대를 사랑하리라

밖으로는 눈꽃을  
안으로는 뜨거운 지혜의 꽃 피우며  
기다림의 긴 추위를 이겨 내리라

비록 어느 날  
눈사태에 쓰러져  
하얀 피 흘리는  
무명(無名)의 순교자가 될지라도  
후회 없는 사랑의 아픔  
연약한 나의 두 팔로  
힘껏 받아 안으리라

모든 잎새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얀 뼈 마디마디 봄을 키우는  
겨울나무여

나도 언젠가는  
끝없는 그리움의 무게를  
땅 위에 내려놓고 떠나리라

노래하며 노래하며  
순백(純白)의 눈사람으로  
그대가 나를 기다리는  
순백의 나라로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  
고  
다  
2

(8)

양삼우  
도로테아

+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 성 김석우 안토니오 누넌 -





# 후원알림마당

##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 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 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

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결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8년 10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및 피정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0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7/14~8/10)

7월~8월에는 조영미 노엘라, 김재희 안젤라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행사 알림

- 9월 각 교정시설 개학
- 9월 3일(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및 피정 / 가톨릭회관 2층
- 9월 3일(월)~4일(화) 사회사목국 위원장 연수
- 9월 4일(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세례식 / 서울남부구치소
- 9월 7일(금)~11월 30일(금) 제20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 센터
- 9월 10일(월) 서울동부구치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 9월 17일(월)~18일(화)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 9월 19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회의 / 교정사목 센터



###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 \*

8월 17일(금)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이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들께서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